

헤럴드경제

2004-12-10 11:56

[김동조 前장관 그는 누구인가]

글로벌 초석닭은 한국 `외교거인`

"마, 치아라. 어디서 초상났나? 내사 마 햇빛 잘 드는 바다로 간다 아이가. 잘들 있그라."

해오(海吾)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평소 각별한 우의를 다졌던 봉두완 씨는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지인들을 향해 틀림없이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고마 됐다"를 연발했던 경상도 사나이, 무뚝뚝하고 엄격했지만 내면의 따뜻함이 사람을 끌어모았던 외강내유형의 지사. 아호인 해오(海吾·바다가 내 것이다)가 보여주듯 그는 바다만큼 넓게 살고 싶었고 실제로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열었던 통 큰 거인이었다.

▶한국 외교의 살아 있는 신화=주미대사와 주일대사를 함께 역임한 유일한 사람, 또 장관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주미대사로 오른 최초의 인물. 외교가에서 고인의 그림자는 너무나 크다.

74년 외무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외무부 내에 그의 이니셜을 딴 "DJ사단"이 생겼을 정도. 그 당시 관훈토론회에서 있었던 실화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봉두완 씨(당시 관훈클럽 총무)가 "일설에는 DJ사단이 외무부를 점거해가고 너무 와일드하게 하는 바람에 외무부 유리창이 다 깨졌다는 설이 있다. 외무부 장관 관두고 차라리 내무부 장관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마 치아라, 쓸 데 없는 얘기하지 마라, 고마 가자"며 연사들을 우루루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 장내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돼버렸다. 그만큼 고인은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같은 성격은 총성 없는 외교전쟁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고인은 한·일수교회담 수석대표로 교섭을 진두지휘했고 박정희 정부 당시 베트남전 파병과 국군현대화 계획 교섭의 막후에서 대미외교를 주도했다.

▶저승 가서도 외교인맥 넓힐 사람=주미대사를 지낸 김경원 고려대 교수는 인맥은 자기를 신용(Credibility) 있는 사람으로 알아주는 지인(知人)들을 지칭한다고 말한다. 미국 조야에 가장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었다는 해오의 명성은 그런 신용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67년부터 73년까지 주미대사 당시 미 국무부의 윌리엄 로저스 장관, 알렉시스 존슨 차관과 너 나 하는 친구였고 하원에서

는 칼 앨버트, 윌리엄 브룸필드 같은 쟁쟁한 친한파 의원들이 한국과 그를 위해 총대를 댔다. 그 결과 72년 뉴스위크가 백악관 국무부 외교단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다섯 명의 스타대사"에 들었고, 국무장관과 차관의 추천으로 워싱턴 최고의 명문 골프장인 체비체이스와 버닝트리 회원이 되기도 했다.

70~80년대 한국 외교 현실을 감안할 때 그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는 고스란히 한국 외교의 첫 발이었고 초석이었던 셈이다.

최호중 외교협회장은 그를 두고 "한국 외교에 긴 호흡을 부여했기에 좀처럼 잊혀지지 않을 외교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혁 기자(hyeok@heraldm.com)